

문화

작품 세일 하니 관람객들 지갑 여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

이달 19일까지 '세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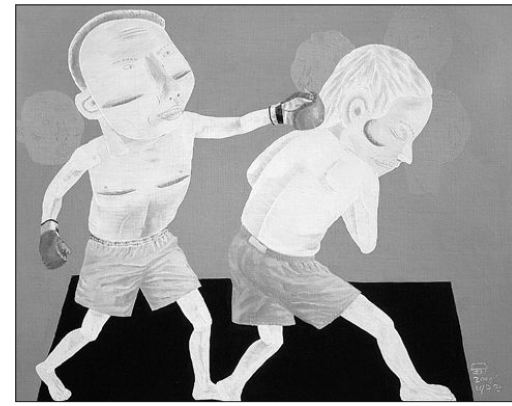
관람객들 눈길 사로 잡아

"저렴한 가격에 작품 사고, 지역 작가도 돕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시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분관장 장경화)에서 열리고 있는 '세일(SALE·6월6일~7월19일)'전이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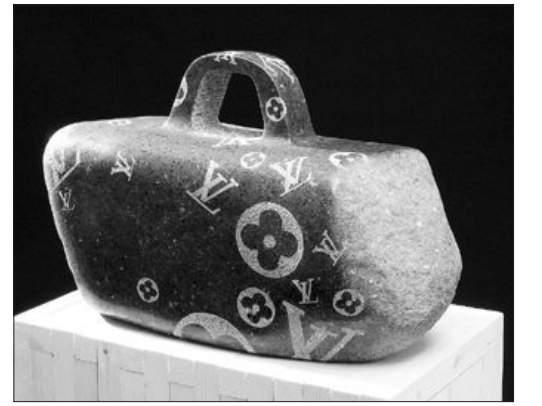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강운, 김상연, 김숙진, 김일진, 박구환, 박수만, 신호윤, 안희정, 위진수, 윤익, 한부찰, 홍성민, 홍은표, 황지영씨 등 124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정한 주제 없이 자신의 철학을 담은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강운씨는 한지에 색연필로 갖가지 야생화를 세밀하게 표현한 '유어공(遊於空)'을 전시한다. 맑고 투명한 파란 색이 다양한 꽃을 형상화했고, 은은한



박수만 작 '2009 등을 돌리다'



양문기 작 'luxury-19'

한지의 여백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이다.

또 고근호씨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인 마릴린 면모를 알뜰미용 관자를 재단하고 채색한 후, 불트와 너트로 조립한 '영웅-면로'를 출품했다.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을 손으로 살짝 내리고 있는 마릴린 면로의 모습을 양중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상록분관의 하루 평균 관람객은 150여명인데 이번 전시에는 매일 400~500여명이 몰려들고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시장 가격보다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기 때문이다.

1일 현재 작품 10여점을 판매했는데,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최근 화랑가의 여건 등을 감안하면 눈여겨 볼만한 성과이다.

장경화 분관장은 "주제가 없다 보니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낼 수 있었다"면서 "좋은 작품을 감상한 뒤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해 지역 미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도 도울 수 있는 전시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369-35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젊은 의학자가 무대는 '우리 가곡부르기' 무대



작곡, 합창지휘자 활동 전남대 의대 국현 교수 10일 호신대서 행복한 추억 쌓기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립 남구 양림동 호신대 내 '티 브라운 카페'에서 열리는 열한번째 모임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이 초대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국현(43)교수다. 악리학을 전공한 국교수는 대한심장학회 젊은 연구자상, 기초의학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유전자 전사 조절에 의한 심부전증 치료법 연구'로 고종황제의 주치의였던 독일 출신 의사 분위를 거쳐 대한의사협회와 독일 베를린에 걸쳐 학업이 제정된 분수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교수에게는 독특한 이력이 추가된다. 국씨는 작곡가이자, 합창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내에는 관현악반, 합창단 등 음악 관련 동아리가 있어 의사를 가운데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이들이 많지만 전문적인 영역으로 꼽히는 '작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교수는 한국합창연합회 산하 한국합창작곡가 협회 창립회원이자 광주 호신엘레오스 앙상블을 전인 작곡가이면서 객원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교수는 지난 2005년 5월 첫 작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작곡한 후 지금까지 80여곡의 합창곡을 만들었다. 지난 2007년에는 엘레오스앙상블과 함께 찬양곡집 CD를 발매했고, 오는 7월에는 아주콘서트와이어와 작곡곡집 '계절이 그리는 풍경소리'를 출판할 예정이다.

이다.

또 지난 4월에는 국립합창단창작합창축제에 작품 위촉을 받고 '초롱 꽃잎'을 발표했으며 광주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등 40여개 국내 합창단들이 국교수의 곡을 연주하거나 CD로 녹음했다.

작곡 뿐 아니라 가사도 직접 쓰는 국교수는 이날 우리가곡 부르기 모임에서 '파란 하늘 먼 쪽지에', '사월 한 봄날에', '수선화야' '숲속' 등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가곡 부르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부를 가곡은 인터넷 내 마을의 노래(www.krsong.com)에서 미리 감상하고 배울 수 있다. 참가비 1만 원, 문의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무용단 '천개의 공감' 대상

제18회 광주무용제... 연기·안무상도 함께 수상

지난달 30일 광주주예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내린 제 18회 광주무용제에서 광주현대무용단의 '천개의 공감'이 대상 등 3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날 경연에서 '천개의 공감'은 연기상(김미선)과 안무상(박종임)도 함께 수상했다.

기상(김미선)과 안무상(박종임)도 함께 수상했다. 시상식은 7월 2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목요일연극 공연에서 오찬화회는 황병기씨가 작곡한 12현 가야금곡 '영복'을, 오찬미씨는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한 '남도환상곡'을 선사한다.

절한 공간 활용, 음악 선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작품의 도입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사각형의 프레임이 사이에 두고 얹히고 열린 인물들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조명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무용제에서는 광주로얄발레단의 '투어츠', 서영무용단의 '미인발곡', 김미선무용단의 '그들만의 게이트',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의 '별리' 등 다섯 작품이 경연을 벌였다.



<김미선>

<박종임>

광주현대무용단은 오는 10월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 18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연하비' 가야금 한마당

오늘 서수 빛고를 국악전수관

가야금 연주단 '가연하비' 초청공연이 2일 오후 7시 광주 서수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광주시 서구청이 주최하는 목요일연극 공연에서 오찬화회는 황병기씨가 작곡한 12현 가야금곡 '영복'을, 오찬미씨는 가야금 산조를 바탕으로 한 '남도환상곡'을 선사한다.



또 윤혜정씨는 모듬북과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진 17현 가야금곡 '단모리'를 들려주며 정세영씨는 '아리랑'을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노인회사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가 장식한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

가사·시조 공모전

담양군 9월15일까지 접수

한국 가사문학의 요람인 담양군이 고전 가사문학의 현대적인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제10회 전국 가사·시조 창작 공모전'을 개최한다.

담양군이 주최하고 조선대 인문학연구원(원장 김수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 마감은 오는 9월15일까지이며 가사와 시조 분야로 나누어 접수한다.

분야별 응모작품 수는 가사는 학생부 1편, 일반부 2편이며 시조의 경우 학생부 2편, 일반부 3편으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심사결과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명과 우수상 4명, 장려상 20명에게는 각각 150만원과 70만원,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작품 접수는 조선대 인문학연구원(원장 김수남)에 이메일(hcu@chosun.ac.kr)로 하면 된다.

문의 한국가사문화관 061-380-3241,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062-230-6519. /김대성기자 bigkim@

인터넷 소설 열기

신경숙·전경린씨도 새 장편 연재 시작

소설가 신경숙(46), 전경린(47)씨 등이 새로 장편소설 연재를 시작하는 등 유명작가들의 인터넷 서점과 문학웹진 소설 연재 열기가 뜨겁다.

'엄마를 부탁해'로 서점가의 돌풍을 일으켰던 신경숙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자신의 일곱번째 장편소설 '어디까지 끊이지 않는 사랑을 전하랴'를 올리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http://blog.aladdin.co.kr)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연재를 시작하며'라는 글을 통해 "이번 소설은 청춘의 사랑에 관한 소설"이라고 설명하고 "지금 청춘을 통과하고 있는 젊은 영혼의 노트를 들여다 보듯 그들 마음에 가까이 가보려 한다"고 밝혔다.

신씨의 소설은 매일(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오전 10시를 전후해 새 연재분이 업그레드되며 11월까지 5개월간 연재될 예정이다.

전경린씨도 지난달 17일부터 인터넷교보문고 북로그를 통해 '풀밭위의 식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다. 전씨는 이번 연재소설에 대해 "기존 삶으로부터 떨어져나가면서 삶을 확장하는 생의 아픈 운동성이 소설의 핵"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작가들의 인터넷 소설 연재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국내외 작가들은 네이버에 '승자는 혼자다'를 연재하는 파울로 코엘류를 비롯해 김이환(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춘(문학동네 인터넷 커뮤니티 '공무도하'), 정도상('낙타')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신경숙>

<전경린>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auction results, including items, prices, and locations. Includes a large logo for 'Km (주)국민법률경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

• 서구청원 광주세무사사무소5층 • 권리분석·현장평가·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액 대출일선·명도(이자)